

전북도, 재난관리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행안부 2026년 평가 우수 선정 재난관리 전 과정 역량 인정 우수사례 시·군 공유 선제적 안전체계 고도화 지속

전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6년 재난관리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재난의 예방부터 대비, 대응, 복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재난

관리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로, 전북자치도는 2023년부터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전국 최고 수준의 재난관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단계별 역량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도는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목표로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현장 중심 안전관리, 도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안전교육과 안전문화운동 추진 ▲재난유형별 안전 점검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 ▲자연재난 대비 실태점검과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 ▲재난 상황관리 대응체계 운영 ▲현장수습 역량과 재해구호 인프라 확보 등 재난관리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

수사례를 시·군과 공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관별 보완계획을 마련해 재난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재난관리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모든 부서와 시·군, 유관기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재난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전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사진=안호영의원실>

안호영, 완주군민에 "행정통합 추진 사과"

완주서 예산정책협의회 열어 "행안부 종결방안 검토 요청"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완주군청에서 유희태 완주군수와 함께 '완주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완주·진안·무주 3개 군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 현안과 2027년도 국가예산 사업을 점검하는 릴레이 일정의 첫 순서로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안호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희태 완주군수, 성중기 완주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완주군 주요 현안과 국가예산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국회사무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현안으로는 ▲피지컬 AI 클러스터 조성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에너지 지산지소와 햇빛연금마을 추진 ▲신규 산단 조성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등이 다뤄졌다.

국가예산 사업으로는 ▲완주산단-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추진 ▲호남고속도로 확장 연계 삼례IC 진출입로 개선 ▲국도 17호선 용진 경계 인재개발원 건립 ▲완주 노후 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등이 논의됐다. 안 의원은 "앞으로 4년은 완주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피지컬 AI, 수소산업, 햇빛연금마을, 신규 산단, 민간 행안부 장관과 별도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안 의원은 완주군청 기자실을 방문해 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주·완주 행정통합 문제에 대한 입장도 설명했다. 안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 문제는 오랜 시간 지역사회에 갈등과 부담을 안겨 온 사안"이라며 "특히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면서 완주군민들 사이의 릴레이 일정의 첫 순서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체계 개편은 주민 공감대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원칙은 변함없다"며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론 절차를 전제로 통합 추진을 주장했지만, 그 결과 완주군민의 갈등과 분열이 더욱 커지고 아픔을 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 과정에서 완주군민 여러분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했고, 지역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더욱 커지게 됐다"며 "완주군민의 큰 사랑을 받아 온 3선 국회의원으로서 이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완주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완주군민의 동의 없는 통합은 있을 수 없으며, 이 원칙은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다"며 "이제는 통합 절차를 하루빨리 종결하고 완주군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역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종결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며 "조만간 행안부 장관과 별도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 여성계, 화요간담회서 성평등 도정 제안

민선9기 전북여성화요간담회 회원 100여명 참석 협력 모색 제안문 통해 6개 정책과제 제안

전북도는 전북여성가족재단에서 민선 9기와 함께하는 전북여성화요간담회를 열고 민선 9기 도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여성계와 성평등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선9기 단체장과 의원, 전북여성화요간담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도정 운영방향 소개, 성평등 제안문 전달, 참석자와의 대화,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전북여성화요간담회가 창립 20주년을 맞는 해로, 참석자들은 지난 20년간 지역 여성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여성의 목소리가 민선 9기 도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날 화요간담회 회원들은 '민선 9기 전북특별자치도 성평등 도정·의정을 위한 제안문'을 통해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확대 ▲성평등 임금격차 개선 ▲공직사회 성인지 역량 강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확대 ▲일·생활 균형과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6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도는 이날 제안된 정책과 현장의 의견을 검토해 민선 9기 성평등 정책에 적극



지난 6월 9일 전북여성화요간담회 20주년 기념 포럼 <사진=전북도> 반영하고, 여성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전북, 마이스 전문인재양성 '박차' 道, 평생교육이용권 154명 추가 지원

전주컨벤션센터 개관 대비 기획사 2급 자격 취득 지원

전북도는 미래 마이스(MICE) 산업을 이끌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6 전북 마이스 아카데미' 입문자 과정을 운영하며 지역 마이스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역 마이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올해 '2026 전북 마이스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재직자 과정을 마쳤으며, 현재는 예비 마이스 인력을 대상으로 컨벤션기획사 2급 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입문자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입문자 과정은 총 6회 일정으로 운영되며, 지난달 27일과 7월 4일에는 필기 시험 대비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생들은 컨벤션 산업의 이해와 행사 기획·운영

등 자격시험 대비 이론을 집중적으로 학습했다.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는 실기시험 대비 교육이 이어진다. 실무 중심의 기획서 작성과 프레젠테이션, 행사 운영 실습 등을 통해 자격증 취득은 물론 현장 실무역량까지 함께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30여 명의 교육생이 과정에 참여해 마이스 전문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도는 전주컨벤션센터 개관과 마이스 산업 성장에 대비해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손미정 관광산업과장은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마이스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2차 마무리...저소득층 우선 지원 AI·디지털 분야 경쟁률 45.1대1

전북도는 지난달 중순부터 모집한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이용권' 2차 모집이 마감됨에 따라 추가 지원 대상자를 총 154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모집은 1차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의 선정포기자·미발급자 등으로 발생한 잔여 예산을 활용하여 추진됐다. 분야별 선정 인원은 △일반 118명, △AI·디지털 16명, △노인 20명으로 총 154명의 도민에게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 사업은 예산을 적극 활용해 취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우선 선정했다. 각 분야별 경쟁률은 일반 5.7:1, AI·디지털 45.1:1, 노인 13.9:1을 기록하여, 도민들의 평생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선정자에게는 평생교육이용권 35만 원이 순차적으로 NH농협채움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용권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 가능하다. 이번에 선정된 2차 평생교육이용권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현재 도내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은 135개 기관(2026.06.30. 기준)이 등록되어 있으며 점차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자세한 사용기관 및 운영 과정에 대한 정보는 진흥원 누리집(jbiles.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은지 기자

<■ 본사 내방>

- ▲ 정성주 김제시장
- ▲ 양유미 김제시 홍보축제실장

-2026년 7월 7일-

장마철 감전사고 예방 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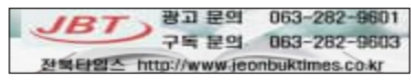
✔️ **젖은손으로 전기기기 만지지 않기**

✔️ **누진치단기 콘센트 상태 시진짐김**

✔️ **신호등 진붓대등 전기시설물접촉 금지**

✔️ **침수 건물은 반드시 진원치단후 징리**

"작은 주의가 감전, 화재를 막습니다, 장마철에 전기안전을 꼭 실천하세요"



전주시 도심 속 대형 물놀이장 운영

25일부터 8월 2일까지
오전 10시~오후 5시 운영

전주월드컵광장이 전주 어린이 위한 도심 속 대형 물놀이장으로 탈바꿈된다.

전주시는 오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전주월드컵광장에서 '2026 한바탕 전주 여름철 물놀이장'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멀리 떠나지 않고도 도심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물놀이 시설과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장 준비에 힘쓰고 있다.

올해 물놀이장에는 인기 시설인 워터 바스켓이 신규 도입된다.



물놀이장 주변에는 무더위쉼터와 대형 그늘막, 탁의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푸드트럭도 함께 운영해 가족 단위 방문객이 보다 쾌적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전기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안전관리자와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

을 포함해 총 18명의 전문 인력을 상시 배치하는 등 안전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1회차(오전 10시~오후 1시), 2회차(오후 2시~오후 5시)로 나눠 운영된다.

이용객 안전과 혼잡 방지를 위해 회차별 선착순 450명씩 입장하며, 하루 최대 900명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개장 전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을 통한 수질검사 △24시간 여과시설 가동 △2시간 간격 수질 점검 △유아용 풀장 매일 욕수 교체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환경을 유지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만의 시간 속 여행

국내외 최고정원 가치 인정
친수공간 도시곳곳 운영

전주시 여름 낮과 밤이 특별함을 내비치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시원한 추억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이유로는 낮시간 전주시 물과 자연의 시원함을, 밤시간 덕진공원 수변시설 야간 콘텐츠가 운영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전주시는 밤시간 활용한 아름다운 빛 문화콘텐츠를 선보인다.

이에 전주시는, 시민들에게는 일상을 휴식을 제공하며 관광객들에게는 전주만의 특별한 추억을 채워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제공 여름콘텐츠로는 △분수 △벽진포 △창포원 △담뱃 숲 놀이터 물담뱃 등 다양한 수변시설이 운영되며 전주시의 물줄기와 자연이 어우러진 친수공간 대표쉼터 등이다.

특히 전주시 곳곳에 마련된 친수공간 쉼터는 시민·관광객들이 가까운 도심에서 더위를 식히며 휴

식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휴양터로 전주를 찾는 모든 이로부터 평가가 높고 있다.

앞서 전주시 덕진공원은 연화정 도서관·문화예술공간·연꽃군락지·공원경관조명·화려한수변시설 등이 이미 국내외에 소개되며 정원의 최고가치로 인정을 받은 전주 대표 공원이다.

아울러 여름밤 전주시 불거리 일한 중 하나인 시민과 관광객들은 덕진공원의 아름다운 연꽃과 수국, 호수 풍경을 감상하며 한여름 자연 속 힐링을 만끽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여름철 콘텐츠 운영과 함께 공원환경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시는 계절별 자연경관과 수변시설, 야간경관을 연계한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시는 이를 토대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사계절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전주의 대표 체류형 문화공원으로 덕진공원을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경찰청 범죄·교통 불편 사항 개선

도민 의견 중심 치안 정책 추진

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은 도민의 의견을 경청한 체감형 맞춤형 치안정책을 펼치며 도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범죄 불안·위협 요인과 교통 불편·무질서 해소를 위해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중한 목소리'와 '교통환경 Re-바이벌' 정책을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추진했다.

그 결과 QR코드 홍보 배너 등 온라인

과 전화, 방문 등의 방식으로 총 1112건의 요청 사항을 접수했다.

접수된 의견 중 711건(63.9%)은 개선이 완료됐으며, 401건(36.1%)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도민의 의견이 현장에 반영된 주요 사항으로는 고창남초등학교 후문에 조명 없이 어두웠던 야간 하갓길 보행안전을 위해 80m 구간 경계석 표지병, 태양광 벽부등 등 조명시설과 112신고 위치

표지판을 설치하고 수목 일부를 제거하는 등 불안전 요인을 제거하고 완주 OO 지역 인근에서 외국인들이 몰려다녀 불안하다는 의견을 접수, 해당 지역을 집중 순찰하던 중 무적(대포)차량을 발견하고 무면허·음주 운전자 및 불법체류자 4명을 검거했다.

또 전주 고속터미널을 이용하기 위한 횡단보도가 없어 멀리 돌아가야만 했던 숲정이고 교차로에 횡단보도 및 신호기를 설치해 보행자 통행 불편을 해소했

다.

이외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전주시 주요 도로 출·퇴근 시간 지·정체 해소를 위한 신호연동 등 '교통신호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어르신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교통안전시설규격 확대 설치, 횡단보도보행 신호를 연장하며, 야간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시설 점검'도 같이 추진한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정연구원 AI 스마트시티 우수인재 양성

전북대혁신인재양성단과 맞손

전주시정연구원과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AI 기반 건설 디지털전환 혁신인재 양성단이 'AI 기반 스마트시티 분야 우수 인재 양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양 기관은 △연구 인력 및 자

원 교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공동 추진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및 정보 교류 △데이터·연구 자료의 상호 제공 및 공동 활용 등의 협력을 확대한다.

한편 협약은 지난 6일 전주시정연구원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민 맞춤형 정원·산림 '힐링체험' 운영

전주정원문화센터

'아름다운 정원 탐방' 등 강좌 마련

전주시민들에게 도심 속 자연에서 배우며 쉴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제공된다.

이를 위해 시는 다양한 숲교육 프로그램과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자연 속에서 배우고 즐기는 여름을 시민들에게 선사하기 위해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풍성하게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는 자연을 배우는 생태체험 △성인과 중장년층에게는 정원문화 제공 등이다.

이를 통해 시는 세대별 관심과 특성에 맞게 즐거운 체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인후공원과 혁신도시, 학산, 서곡, 건지산, 바위백이 등 6개 유아숲체험원에서 계절 특성을 반영한 다채로운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6개 유아숲체험원은 7월부터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오감으로 숲을 배울 수 있도록 계절의 특성을 살린 체험 중심 교육을 운영한다.

시는 중장년층 등 성인들을 위해 전주정원문화센터에서 풍성한 여름 정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전국의 우수 정원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정원탐방' △직접 정원을 설계해 보는 '우리집 정원사' △실내에서 시원한 미니 워터가든을 즐길 수 있는 '슬기로운 홈가드닝' △여름철 정원의

/정소민 기자

도민 안전 책임질 새내기 소방관 149명 실전훈련 돌입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진형민)는 2026년 신규 채용된 소방공무원 149명이 중앙소방학교와 광주소방학교에서 24주간의 신입교육과정에 입고 본격적인 소방관 양성교육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교육은 화재·구조·구급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 소방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생들은 집합교육 22주와 관서실습 2주 등 총 24주간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교육 대상자는 총 149명이다. 중앙소방학교에는 구급 경력채용 35명이 입교하고, 광주소방학교에는 공개경쟁채용 47명, 구급 50명, 구조 17명 등 114명이 입교한다.

교육생들은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사이버교육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사명감, 안전사고 예방, 소방시설 기초 이론 등을 사전 학습한다.

이후 총 800여 시간에 걸쳐 행정실무, 현장실무, 심화과정, 판서 실무수습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받는다.

특히 올해 신입교육은 실제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생들은 소방호스 전개와 연장, 사다리 설치와 등반, 소방펌프차량 조작 등 현장 활용도가 높은 핵심 과목을 집중 훈련한다.

교육 마지막에는 도내 소방서에서 2주간 관서실습을 진행한다. 교육생들은 화재·구조·구급 업무를 직접 경험하며 현장 적응력과 실무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예수병원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27년 완공 병원 특수학급 등
'4대 핵심 특화 시스템' 구축

전북지역 장애인 그리고 재활 환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이 전주 예수병원(병원장 신홍식)을 중심으로 본격화된다.

예수병원(병원장 신홍식)은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전북권역통합재활병원' 건립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7일 밝혔다.

새롭게 들어설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은 예수병원 인근 제2주차장 부지에 국비와 지방비 포함 총사업비 764억원이 투입되어 건립된다.

규모는 지하 3층~지상 7층, 연면적 1만 7103㎡(약 5,170평)으로 조성되며, 내부에는 150병상 규모의 입원 병동과 20병상 규모의 낮 병동, 집중 재활치료가 가능한 첨단 전문 외래진료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낮 병동'은 환자가 낮 시간 동안 병원에서 집중 재활 치료를 받고 야



전북지역 장애인 그리고 재활 환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이 전주 예수병원(병원장 신홍식)을 중심으로 본격화된다 <사진=예수병원>

간에는 가정으로 돌아가 일상생활 적응을 돕는 선진국형 재활 시스템이다.

예수병원은 이번 개원을 통해 도내 의료 공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환자들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급성

기·회복기 집중 재활 서비스를 받아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나아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장애인 건강검진, 방문 재활 등 다각적인 공공보건으로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할 예

/정소민 기자

권기현 사장 주유소 유증기 화재폭발 안전관리 추진

관내 70개소 셸프주유소 대상

여름철 기온상승에 의한 유증기 폭발 화재 위험이 높아지며 시기가.

이에 권기현 전주덕진소방서장은 도시민 안전관리 위한 위험요인 사전 차단

중심으로 셸프주유취급소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유증기 발생이 증가해지는 여름철은 작은 불꽃이나 정전기에도 화재발생이 나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권기현 사장 및 전주덕진소방서 위험

물 담당자와 화재안전조사단이 관내 셸프주유취급소 70개소를 대상으로 위험물 소방검사와 안전컨설팅을 병행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대리

/김영태 기자

자 상주 여부 △유치·구조·설비기준 적합 여부 △정기점검 이행 여부 △유류시설의 유증기 발생 여부 △침수 우려 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위험사항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과 안전컨설팅을 통해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북대병원 정연준 교수팀 세계최고 의학저널에 논문 게재

희귀 기생충 감염 '스파르가눔증' 임상 표준 제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소아외과 정연준 교수팀이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학술지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연구 논문을 게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NEJM은 전 세계 의학 분야에서 가장 높은 영향력과 권위를 인정받는 국제학술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의학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연구만을 게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게재된 논문은 희귀 기생충 감염 질환인 스파르가눔증(Sparganosis)을 주제로 한 임상 이미징(Image in Clinical Medicine) 연구다.

정연준 교수는 책임저자로 참여해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질환의 특징과

진단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으며 스파르가눔증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임상적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감염원이 최대 50년 가까이 인체에 잠복한 뒤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상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과거의 식습관이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의료가 환자의 장기적인 생활력과 식이력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에는 감염내과 이창섭 교수도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이 교수는 2015년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 2018년 비브리오 패혈증(Vibrio vulnificus) 연구에 이어 이번 논문까지 개인 통산 세 번째 NEJM 게재라는 성과를 달성하며 세계적 수준의 감염병 임상 연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정소민 기자

농협전북본부-임실군 '사랑의 축산물 情 나눔'

취약계층·어르신 건강 증진 도와 사회공헌활동 '한몫'

'전북농협', '(사)나눔축산운동본부', '임실축협', '임실군조합운영협의회', '농협임실군지부'가 어르신 건강기원 사랑의 축산물 情 나눔 행사를 7일 개최했다.

축산물 情 나눔 행사는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도우며 우리 축산물 소비촉진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득수 임실군수, 김종철 임실축협 조합장직무대행, 안찬우 전북농협 경제본부부장, 이재문 농협임실군지부장, 최동선 임실군조합운영협의



김성훈 본부장

회장, 임실군 관내 농·축협 조합장 등이 참석해 480만원 상당의 상계당 400개를 임실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학성)과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지회장 이강년)에 전달했다.

더불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응원했다. 삼계탕은 어르신들과 지역 취약계층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나눔에는 임실치즈농협(조합장 이창식) 요구르트 500개(50만원 상당)를 별도의 후원도 '사랑의 축산물 情 나눔' 행사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훈 본부장은 "우리 축산물로 전하는 작은 정성이 어르신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축산운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전북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임실축협 조합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임실축협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득수 임실군수는 "지역 어르신 위한 나눔문화가 더욱 확산돼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나눔축산운동은 축산업의 사회공헌 기능을 강화하고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나아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선진 축산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 소비, 농업인,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펼치는 범 축산업계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실천운동으로 1% 기부·나눔 활동, 소외계층 봉사·후원활동 등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사진=농촌진흥청>

"국산 팥 안정적인 공급 기반 다진다!"

농진청 '생산-소비' 선순환 모델 확산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식량과학원은 '산업체 연계 지역특화 가공용 팥 원료곡 생산기반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까지 조성한 팥 원료곡 생산단지 5개소, 누적 면적은 100헥타르에 달한다.

특히 대구 군위군은 경주 황남빵과 업무협약(MOU) 체결해 2025년 생산된 팥 20톤을 팥빵 제품으로 소비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시범사업 3년 차를 맞은 올해는 경기 연천군, 강원 영월군, 충남 공주시 3개 시군에서 10헥타르 규모로 생산단지를 조성한다.

이로써 팥 원료곡 생산단지를 전국 8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가공적인 친환경 농기계 보급 모델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국립식량과학원은 고품질 팥의 안정적인 생산을 돕기 위해 생략하

기계와 수확물 처리장비, 원료곡 가공기기를 현장에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품질 균일화, 고급화를 꾀하고, 지역 가공·유통처와 연계해 지역특화 가공식품 개발 및 소비 확대를 뒷받침한다.

한편 2025년 기준 국내 팥 재배 면적은 약 4000헥타르(ha), 생산량은 6000톤 규모다.

대부분 0.5헥타르 미만 소규모 재배가 많다 보니, 국내 소비와 가공 수요에 맞춰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황택상 과장은 "가공업체가 요구하는 원료곡 수요와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연결하는 현장 중심의 사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수한 국산 팥 품종을 바탕으로 생산-가공-소비가 이어지는 국산 팥 산업화 모델을 지속해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TP-우즈베키스탄 '친환경 농기계 보급' 연수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계자 초청 기술 협력 방안 논의

전북테크노파크(이하 전북TP)가 '우즈베키스탄 친환경(CNG) 농기계 보급지원 사업' 초청연수를 운영한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협력개발사업(ODA)으로 추진 중인 '우즈베키스탄 친환경(CNG) 농기계 보급지원 사업'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자립과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에너지 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인 농업 분야의 친환경 농기계 개발 및 보급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연수는 한국의 선진 친환경 농기계 기술을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확산시키고 양국 간의 실질적인 기술적·산업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기관은 전북TP이며 참여기관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아그로솔루션코리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다.

연수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초청된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계자들 대상으로 진행된다.

우즈베키스탄은 비옥한 토지와 관계 시설을 기반으로 면화, 밀, 과일·채소 등

을 생산하는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농업국이다.

2025년 기준 인구는 약 3770만명이며,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약 63%로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주요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IMF는 2026년 경제성장률은 약 6.8%로 전망함에 따라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국가다.

이번 연수 기간 전북, 익산, 서울 등 주요 거점 지역을 방문해 한국의 농기계 산업 인프라를 직접 확인하고 구체적인 친

환경 농기계 보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농기계 보급 현안 점검 △익산 소재 농기계 제조 공장 견학 △필드 테스트 장비 및 기자재 확인 △서울 소재 농기계 기업 본사 방문 등이다.

특히 이번 연수의 핵심인 2026년도 CNG 트랙터 시범 보급 방안과 현지 생산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환경에 최적인 친환경 농기계 보급 모델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국민연금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첫 계약 체결

대한민국 최초 공공신탁 공공서비스가동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대한민국 최초 공공신탁 제도인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첫 이용 사례(서울·경기·세종 등 4건)가 나왔다.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의료비, 요양비, 생필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이다.

이번 계약은 지난 4월 22일 보건복지



<사진=국민연금>

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를 도입한 지 약 두 달 만에 거둔 뜻깊은 성과로 치매환자 등 인지저하로 재산관리가 힘들었던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공공기관이 직접 맡아 해결하는 실질적인 첫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연금은 사업 초기부터 요양기관 협회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전국 지사와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해 왔다.

본인이나 가족이 상담신청을 하거나 유관기관에서 대상자를 의뢰하면 육구·재산을 파악해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

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번 상담을 거치고 가족, 후견인 등 보호자와 함께 상담하는 경우도 많아 보통 계약체결까지 1~2개월이 걸린다. 치매환자의 경우 계약체결을 위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2~3개월이 더 소요될 수 있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 서비스의 취지는 가족 내에서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적절히 관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연금은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농협은행전북본부, 신촌상가 '만국기 거리' 조성

완산구 신촌4길 골목 경제 활력 이색적인 상생 행사 마련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고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이색적인 상생 행사를 마련했다.

지난 6일 NH농협은행 장길한 전북본부장과 중화산동2가 신촌상가변영회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만국기 거리 조성 행사'를 개최했다.

만국기 거리 조성 행사는 해당 상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색다른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취지에서 기획했다.

행사에는 정명례 요식업조합장산지부장, 강락현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 유장명 전주주소상공인연합회장, 신촌상가변영회 회원 등이 참여했다.

김순규(골매리네) 사장은 "이번 만국기 거리 조성을 통해 신촌4길 일대 거리에 유동 인구가 유입되며 인근 식당

가와 상점가의 매출 증대 등의 실질적인 경제 효과로 이어질지 바란다"며 기대했다.

황의경 농협은행 기업성장지원부장은 "전북본부에서 시작된 이 인기 있는 상생 노력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인 롤모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농협은행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전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장길한 농협은행 전북본부장 "이번 만국기 거리가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새로운 활력의 중심지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함께 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상생 맞춤형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건협, 국가유공자건강검진 25년째 지원

전국 17개 연간 1만여명 검진

건협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건강검진 사업을 24년간 이어오고 있다.

그러면서 그동안 총 146,000여명의 국가유공자와 가족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 역시 전국 17개 건강검진위원을 통해 약 1만명을 대상으로 16종 67개 항목(1인당 약 18만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KH한국건강관리협회 김인원 회장 그리고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국가유공자 건강검진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건협 경기도 지부를 방문했다.

방문을 통해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과 강위중 한국건강관리협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건강검진 운영 현황 파악과 검진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격려했다.

건협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와 함께 지난 2002년부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건강검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유공자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위

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강윤진 차관은 검진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또 국가유공자 건강검진과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건협 경기도 지부 영상검사와 김성근 탐장에게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건협 강위중 사무총장은 "국가유공자 건강검진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와 예우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보훈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건강을 보살피는 것은 물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공익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건협은 건강검진 전문기관으로서 국가유공자 건강검진 지원사업 외에도 취약계층 건강검진 지원,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신협 '1신협·1아동 결연후원식' 진행

초록우산전북본부 동창 아동 성장 지원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2026년 1신협·1아동 결연후원식'을 진행했다.

지난 6일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와 '2026년 1신협·1아동 결연후원식'과 전북신협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 '2026년 제1차 리더스다이제스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신협·1아동 후원사업은 통해 초록우산 전북본부가 지역 내 취약아동을 추천하고, 한 개의 신협당 한 명의 아동을 후원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북신협은 초록우산전북본부와 2023년부터 매년 정기결연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전북지역 46개 신협이 참여해 46명의 아동을 1년 동안 후원하게 된다.

이번 결연식으로 전달한 금액은 5520만원이며, 결연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성장, 학습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전북신협이 초록우산전북본부에 전달한 금액은 2억640만원이다.

신협 전북지역협의회 양춘제 회장은 "전북신협은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꿈을 응원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신협 리더스다이제스트 세미나는 2022년부터 전북신협 임직원의 의견교환의 장 마련,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따른 주요 현안을 민첩히 대응하기 위해 실시된 임직원 교육프로그램으로 올해 5주년을 맞는다.

경영·경제·법률 그리고 리더십 및 교양전반에 대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신협 내부 최고경영자들의 역량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말마다 교육비 일부를 신협사회공헌재단에 기부해오고 있다.

그 결과 전북신협은 지난해 6월 자산 10조를 달성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격한 경기하회에도 꾸준한 연체율 감소를 시현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건설협회 전북도회 '조달청 입찰자격' 설명회

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 국토부 불법하도급 상시단속 관련

대한건설협회 소재철 전북특별자치도회장은 '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 및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상시단속 관련 업무 설명회'를 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최근 정부가 건설현장 투명성 제고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와 국토교통부의 불법하도급 상시단속을 엄격히 강화함에 따라 마련됐다.

또 관련해 국내 건설업체들이 변화된 단속 기준을 정확히 숙지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회원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설명회에서 조달청은 △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 주요 점검 사항 및 서류

준비 요령을 설명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국토부 불법하도급 상시단속 적발 사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하도급 관리 실무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설명회 중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 중심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소재철 회장은 "최근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의지가 강해진 만큼, 회원사 피해가 없도록 전국 최초로 권역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에서 이번 설명회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회원사 임직원의 실무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글로벌 태권도 캠프’ 11일 무주군서 개막

11월 1일까지 개최 지역 특화 태권도 교육모델 ‘눈길’

‘2026 글로벌 태권도 캠프’가 오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기간 중 총 4회에 걸쳐 운영되며 이번 캠프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국내·외 태권도 수련생과 지도자 등 총 1천4백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1회차는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2회차는 내달 22일부터 23일까지, 3회차는 오는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4회차는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각각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된다. 올해는 태권도 교육, 디지털 스포츠 체험, 지역 상생 프로그램을 강화해 스태킹도 명사 특강 스태킹도 시범 공연 △가상

(버추얼) 태권도 체험 스태킹챌린지 스태킹어드벤처 △반디랜드 생태체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가상(버추얼) 태권도 체험’이 핵심 프로그램으로 마련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가상(버추얼) 태권도 체험’은 태권도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여주는 교육형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기존 태권도 수련에서 익힌 동작과 경기 감각을 디지털 환경에서 직접 체험하며 태권도가 세계 스포츠 흐름 속에서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경험하게 된다.

김영우 무주군청 태권문화과장은 “글로벌 태권도 캠프는 지난해 처음 시작돼 참가자와 지도자, 지역 주민 모두에게 호응을 얻으며 무주가 가진 태권도 교육자원의 가치를 확인하는 무대가 됐다”라며 “올해는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가상(버추얼) 태권도 체험은 물론,



<사진=무주군>

태권 챌린지, 그리고 다양한 관광자원이 연계돼 무주만의 특색 있는 체류형 교육캠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들이 태권도 수련을 넘어 진로와 교육, 지역문화를 함께 경험하고 숙박, 음식, 관광·체험시설 이용 활성화로 지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

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은 태권도를 교육·산업·관광 등과 결합한 지역경제 성장축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으로, ‘태권도 성지’ 브랜드 강화와 국제대회 유치·개최 확대 노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완주군 ‘나를 찾는 여행’ 참가자 모집

18·25일 당일형 관광프로그램 운영

완주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8일과 25일 ‘2026 스테이 삼례 런케이션-나를 찾는 여행’ 당일형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재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 삼례 런케이션은 전북특별자치도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관광콘텐츠로, 학습(Learn)과 휴식(Vacation)을 결합한 런케이션(Learn+Vacation) 개념을 적용해 여행과 자기이해, 지역문화 체험을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삼례문화예술촌·예술인마을 일원에서 올해 총 10회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1차로 7월부터 9월까지 총 8회의 당일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TCI(기질·성격) 검사를 관광 프로그램에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참가자들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기질과 성격을 이해하고 전문 강사의 해설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전문 이야기꾼과 함께하는 삼례문화예술촌 투어 △로컬푸드를 활용한 힐링 런치 △CPA 컬러기질 프로그램 △나만의 우드 사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삼례의 문화자원과 지역의 매력을 함께 경험



<사진=완주군>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심리 기반 자기이해와 문화예술 체험, 지역관광을 융합한 관광콘텐츠로, 단순한 방문형 관광을 넘어 체험과 치유를 결합한 차별화된 관광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희태 완주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이번 런케이션 프로그램은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협력해 관광의 영역을 자기이해와 치유까지 확장한 새로운 관광콘텐츠”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체류형·체험형 관광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관광 활성화와 관계인구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전북대,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전 평가 영역 기준 충족 2032년까지 자격 유지

전북대학교가 한국대학평가원 주관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해 오는 2032년 2월까지 5년간 인증 자격을 유지한다.

전북대는 7일 대학경영 및 사회적 책무, 교육과정, 교직원, 학생지원 및 시설 등 모든 평가 영역에서 인증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대학의 교육·연구·건교 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고등교육 품질보증 제도다.

평가단은 전북대의 주요 지표로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IR) 구축과 글로벌대학30, 국립대학육성사업,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연계 운영 현황을 질었다.

세부 평가에서는 △복수전공 및 융복합 교육 확대 △AI교육센터·첨단 학

습공간(AI SPACE) 조성 등이 기준 충족의 근거로 반영됐다. 지역사회 및 타 대학과의 교육·연구 자원 공유 실적 또한 거점국립대의 공적 책무 이행 지표로 확인됐다.

양오봉 총장은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와 AI 교육혁신 체계를 고도화하고, 현재 추진 중인 글로벌대학30과 RISE 사업을 거점 연구 기반과 연계해 안착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전국최다39개 ‘초등 학교자율시간’ 과목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7일 본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초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 초등 학교자율시간 운영 전문성 신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학교자율시간’은 지역과 학교 여건에 맞춰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학교가 직접 개설해 운영하는 제도다.

현재 전북교육청은 2024년 도입된 초등 3~4학년 과목 18개와 2025년 도입된 초등 5~6학년 과목 21개 등 총 39개의 교육감 승인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최현호 교육감의 인사와 이리모현호 문효명 교사가 각각 신규 개설 과목인 ‘부부리 마을’과 ‘푸름’의 교육과정 편성 및 수업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행사장에는 도내 15개 학교가 실제 운영 중인 자율시간 과목 자료가 전시돼 참석자들이 학교 실정에 맞는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전북교육청은 내달 신규 교육감 승인 과목 신청을 접수하고, 오는 9~10월 컨설팅 및 심사를 거쳐 추가 승인 과목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호성 교육감은 “학교가 스스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정읍시 ‘시장배 클럽대항 볼링대회’ 성료

500여 명 참가해 화합·친목 다져

‘제23회 정읍시장배 클럽대항 볼링대회’가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정읍시원탁볼링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정읍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정읍시볼링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역 동호인 사이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정읍시가 후원한 행사에는 약 500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대회 첫날인 4일에는 2인조 경기와 개인전 일부를 진행했다. 이어진 5일에는 3인조 경기와 남은 개인전을 치르며 열기를 더했다. 치열한 접전 끝에 2인조 경기 우승은 ‘퍼펙트’ 클럽 소속 정민규, 김현 선수가 차지했다. 개인전 여자부 정상 역시 같은 클럽 소속의 김현 선수가 올랐고, 남자부 우승은 까만곰 클럽의 이동현 선수에게 돌아갔다.

대미를 장식한 3인조 경기는 드림클럽 소속 정준식, 유봉용, 장순현 선수가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이학수 시장은 “볼링은 비가 오는 날씨에도 구애받지 않고 다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실내 운동”이라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버리고, 동료인 사이의 끈끈한 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예측하기 힘든 여름날씨

폭염 발생 시 행동요령



- tv,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무더위 기상정보 수시로 확인하기
- 술이나 카페인 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을 많이 마시기
- 가장더운 오후2시~오후5시 가급적 야외활동, 작업피하기



- 냉방기 사용 시, 실내온도차를 5도 내외로 유지 하여 냉방병 예방하기
*적정 실내 냉방 온도 : 26~28도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의 가벼운 증세가 있으면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기

전북은행, 군산시 여성 청소년에 보건위생용품 기탁

군산시(시장 김재준)는 7일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으로부터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을 위한 보건위생용품 100상자(338만원 상당)를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전북은행의 2026 '딸에게 보내는 선물'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상자는 생리대 5종, 물티슈, 파우치 등 총 7종의 필수 위생용품으로 구성됐으며, 경제적 부담으로 위생용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북은행은 이번 지원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한편, '가장 따뜻한 금융'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며 '시민주권도시 군산'을 향한 첫발을 내딛는 자리에 전북은행이 따뜻한 동반자로 뜻을 모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 마음이 지원이 꼭 필요한 여성청소년들에게 제때 닿도록 시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가루쌀 안정 생산 위한 현장기술 지도

정읍시는 쌀 수급 안정과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지역 내 246ha 규모의 가루쌀 전문생산 단지를 조성하고 지난 6일 본격적인 현장 영농 지도에 나섰다.

시는 올해 3개 생산 단체와 협력해 대규모 가루쌀 재배 구역을 구축했다. 이곳에서 키우는 품종은 '바로미2'다. 일반 밥쌀과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곧바로 제분할 수 있는 특수미다. 밀가루처럼 쓰기 좋아 제과와 제빵, 면류 등 다양한 식품 가공 원료로 활용된다. 밀 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장 지도는 파종부터 종자 소독, 고온기 육묘 요령, 제때 모내기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이뤄졌다. 가루쌀은 더위가 시작되는 6월 중순 이후 모를 기르기 시작해 지나치게 지라거나 들뜨지 않게 관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종자를 소독할 때 온탕 소독을 거치면 발아율이 떨어질 수 있어 약제 소독만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다.

가루쌀의 모내기 적기는 일반 벼보다 늦은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 사이다. 생육 기간이 짧아 모내기를 늦게 할 수 있는 덕분에 밀이나 보리 같은 동계 작물과 이모작을 하기에 매우 유리하다. 이모작을 실천할 경우 전락 작물 직불금 단가 인상 혜택을 누리면서 경영비까지 줄일 수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가루쌀 생육 단계별로 철저한 현장 기술 지원을 펼쳐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며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을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2026~2027절기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모집

익산시는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및 고위험군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계약 체결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어린이와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계약은 기간 제약 없이 연중 가능하다.

신규 계약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 온라인 교육시스템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필수 서류 및 교육 수료 정보를 입력하고 위탁계약을 신청하면 된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위탁의료기관은 갱신을 신청하면 된다.

위탁의료기관 계약 관련 매뉴얼과 교육 안내는 익산시보건소 누리집 정보마당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예방접종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위탁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예방접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농산물 경쟁력 강화 2(題)

양파 농가 판로 확보 지원

기업과 공급망 구축

익산시가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활성화와 유통망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지역 농식품기업과 생산농가를 연결하는 '기업맞춤형 농산물 수급안정사업'과 '계약재배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통해 농가는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고, 기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상생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농식품기업 (㈜넥스토팜)의 익산 양파 매입량이 3,200톤까지 확대되면서 지역 농가의 판로

확보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시는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주)넥스토팜과 함께 계약재배 참여 농가 조직화 및 생산·유통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달까지 여산면을 비롯해 왕궁면, 망성면 등 지역 곳곳에서 양파 수매를 마무리했다.

이번 매입량 증가는 최근 양파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익산시는 이번 성과가 관련 사업 예산 확대를 통한 시의 행정적 지원과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의 현장 지원, 농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바탕이 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서동마 영농현장 컨설팅

안정적생산 기반 마련

익산시가 지역특화작목인 서동마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장 중심 영농 지원에 나섰다.

익산시는 7일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과 함께 금마농협에서 지역 마 재배 농가 10여 명을 대상으로 '서동마 영농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최근 재배지 배수불량과 이상기후 등으로 상품성과 생산량 저하를 겪고 있는 농가의 예로 사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농촌진흥청 마 재배 전문가인 김재철 박사가 강사로 참여해 마 재배기술과 병해충 관리, 토양 관리 등 핵심 영농 기술을 소개했다.

이러 농업인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현장에서 겪는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서동마를 지역 대표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종근과 농자재 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서동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영농현장 컨설팅이 서동마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특화작목인 서동마의 품질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숙련기술 최고장인 '군산시 명장' 모집

38개 분야 92개 직종 27~31일까지 접수

군산시(시장 김재준)는 산업현장에서 뛰어난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술인을 발굴·예우하기 위해 '2026년 군산시 명장'을 공개 모집한다.

군산시 명장 제도는 한 분야에서 오랜 기간 기술을 연마하며 숙련기술 발전과 계승에 기여한 기술인을 선정해 지역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모집 대상은 기계설계, 금속재료, 공예 등 38개 분야 92개 직종이다. 신청 자격은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 △공공일 현재 군산시에 5년 이상

주민등록 △군산시 소재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숙련기술 발전과 기술인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돼야 한다.

선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진행된다. 외부 전문가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명장심사위원회의 기술 숙련도와 전문성, 숙련기술 발전 기여도, 사회공헌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명장을 선정한다.

명장으로 선정되면 군산시장 명의의 명장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되며, 군산시 누리집 명장 코너에도 이름이 등재된다.

이런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산업 발전과 기술인 지위 향상에 기여해 온 숙련기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군산시>

접수기간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은 읍면동장이나 관내 기업체의 장, 업종별 협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홀로그램 콘텐츠 고도화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 착수보고회 개최

익산시가 오는 9월 열리는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와 홀로그램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에 본격 나섰다.

익산시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5회 익산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과 '홀로그램 쇼룸 콘텐츠 고도화 및 유지보수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최정호 익산시장을 비롯해 박선미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산업과장, 김성구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장, 최대규 전북디지털융합센터장 등이 참석해 축제 추진 방향과 홀로그램 쇼룸 콘텐츠 개선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익산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은 오는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18일부터 20일까지 총 7일간 익산교도소세탁장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모케이션 X : 금지된 생방송'을 주제로 교도소세탁장이라는 이색 공간에 홀로그램 기술을 접목한 몰입형 공포체험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호러 코스프레 대회, 퀴즈

쇼 X파일, 브레이킹던 시즌3, 공포 운동회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홀로그램 콘텐츠는 시민에게는 일상 속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고, 익산에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러 "완성도 높은 콘텐츠와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축제로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착한가격업소' 확대 운영

신규 업소 3곳 지정 인증 표찰 수여

군산시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착한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3개소(외식업 2, 미용업 1)를 신규 지정하고, 7일 인증 표찰을 수여했다.

착한가격업소란 △착한가격 △결정된 원생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 지역 평균 물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가격 수준, 위생·결정,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에 지정한다.

시는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심사와 평가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3개 업소를 신규 지정하고, 신규 지정 1년 이상이 경과한 업소를 대상으로 재심사를 진행해 40개소를 재지정했으며, 신규 지정 1년 미만 업소 20개소를 포함해 총 63개소의 착한가격업소를 운영 중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인

증 표찰 수여 △상·하반기 연2회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납부청 등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언론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다.

이런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장기화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착한가격업소 확대와 지원을 통해 지역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어르신 동행 차량 '시동'

출발~귀가까지 밀착 지원

정읍시가 거동이 불편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집에서 병원 진료와 약국 방문을 거쳐 귀가까지 책임지는 맞춤형 무료 동행 서비스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7일 오전, 고부면에 사는 노 어르신(78)의 자택 앞에 정읍시 마크가 찍힌 전기 자동차 한 대가 멈춰 섰다. 동행 안내원(매니저)의 부축을 받아 차량에 탑승한 노 어르신은 편안하게 이동해 정읍아산병원에 도착했고, 예약해 둔 진료를 무사히 마쳤다.

이날 노 어르신이 이용한 것은 정읍시가 이달부터 새롭게 선보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다. 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고향사랑기금 7000만원을 들여 이번 시책을 마련했다.

이 서비스는 교통 약자 어르신을 위해 전용 차량과 안내원을 배정해 집을 나설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동반 도착부터 접수와 수납, 입원 과 퇴원, 약국 이동과 투약 설명 등



전 과정을 밀착해서 살핀다. 몸이 불편하지만 요양원 대신 집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통합 돌봄 대상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꼼꼼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행 기관인 정읍시니어클럽에 보조금을 지원해 차량 1대를 사고 전담 기사 1명을 채용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10명을 안 내원으로 선별해 자격 취득과 이용자 안전 교육까지 모두 마쳤다.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주말과 공휴일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근무 조건에 따라 운영하지 않는다. 이학수 시장은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병원 동행 서비스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우수한 사례로 남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익산시의회, 시정 발전 '한뫼'

상권례 개최... 주요 현안 논의

민선 9기 익산시와 제10대 익산시의회가 만남을 갖고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익산시는 7일 제10대 익산시의회 개원에 맞춰 익산시의회와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 함께하는 상권례를 개최했다. 이번 상권례는 익산시와 익산시의회 간 소통과 협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2027년 분예산 편성과 조직개편 추진을 비롯한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시정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집행부와 시의회가 상호 존중과 신

뢰를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김충영 익산시의회 의장은 "시민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시의회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마음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것인 만큼 시민과 익산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익산시가 당당하게 호남 3대 도시의 명예를 되찾고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익산시의회가 든든한 동반자가 돼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익산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와 국회, 투자 현장 등 어디든 직접 발로 뛰며 익산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예방

투명한 복지서비스 강화

군산시는 지난 7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600여 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 및 정령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의적인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현장 실무자들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처리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사례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사회보장급여 전산망과 바우처 심사를 총괄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바우처 심사관리부 전

문 강사 2명을 직접 초빙해 교육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강사들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전산망 데이터와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결제하는 허위청구 △가족·이용자 간 명의 대여 등 담합 △서비스 시간 초과 결제 등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소개했다.

시 관계자는 "바우처 심사를 총괄하는 전문기관이 직접 사례 중심 교육을 진행해 현장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취재사이드, 정읍시에 장학금 1000만원 기탁

지역 인재 양성 보탬

(취재사이드(대표 유영국)가 7일 정읍 지역 인재를 기르는 데 써달라며 정읍시민장학재단에 1000만원을 기탁했다.

경기도 성남시에 본사를 둔 (취재사이드는 국내 대표 동물용 의약품 제조 기업이다. 백신을 비롯한 여러 동물용의약품을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며 반려동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현재 이 기업은 정읍시 신청동에 동물 백신 생산 공장을 건립하는 중이다.

공장 신축을 통해 지역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유영국 대표는 "이번 장학금이 학생들이 꿈을 이루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준 (취재사이드에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 주신 장학금은 학생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민 기자

김제 신흥지구 도시재생 '청신호'

국토부 공모 선정 2031년까지 노후주거지 정비에 154억 투입 주민 삶의 질 향상 기대

김제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상반기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 신흥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국비 150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시는 지난해 12월 금산면 일원의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이어 올해 신흥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까지 연이어 선정되며 2년 연속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노후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주차장·공원·생활SOC 등 생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확충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주택 정비와 신축을 유도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정주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신흥동 457번지 일원 118,311㎡를 대상으로 오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54억 7,700만원을 투입해 주택정비 활성화, 생활기반시설 확충, 주민편의시설 조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정비 활성화 분야에서는 신규주택 공급과 빈집 정비, 집수리

지원 등을 추진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생활기반시설 분야에서는 신규도로 개설, 안전한 동네길 조성, 노외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커뮤니티시설과 마을정원을 조성해 주민 소통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난해 도시재생 인정사업 선정에 이어 올해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까지 2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치매환자 조호물품 '택배 배송'

시간적·경제적 부담 완화

고창군이 이달부터 치매환자 조호물품인 기저귀를 각 가정으로 직접 배송하는 '택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치매환자나 보호자가 조호물품을 받기 위해 거리에 상관이 없이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등으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 보호자들은 물품 수령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2차 배부부터는 택배 배송 방식으로 전환해 대상자 389명이 가정에서 편리하게 조호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조호물품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연 3회에 걸쳐 최대 24팩의 기저귀를 2년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 확인을 거쳐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배송 방식 개선으로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센터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보건소는 앞으로도 치매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치매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1071명에 10억 6700만원 지급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7일 부안군청 5층 회의실에서 2026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장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는 권익현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임원, 장학사업 후원자, 장학생 등 30명이 참석했으며 장학생 15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들은 지난 6월 24일 개최된 재단 제2차 이사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재단은 반값등록금, 다자녀장학금, 특기장학금, 대학비전학업·취업학원비 지원금 등 4개 분야에 대한 신청자격과 제출서류, 지원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 1071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10억 6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특히 수여식에서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온 후원자와 재단 임원들이 직접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권익현 이사장은 "오늘 수여하는 장학증서는 단순한 증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 꿈을 응원하는 군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소중한 약속"이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으며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찾아가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예방교실 운영

김제시보건소는 어린이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와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로 선정된 7개소(도담도담어린이집, 사과나무어린이집, 성만유치원, 성모유치원, 중앙유치원, 해바라기유치원, 진봉초등학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토피·천식 예방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교실은 전북특별자치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와 연계해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예방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일에는 중앙유치원 원아 58명을 대상으로 아토피·천식 예방 인형극과 아토피 피부부염 O-X 퀴즈를 진행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교육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보건소는 7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나머지 6개 안심학교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예방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알레르기 질환은 조기 예방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심학교 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새마을운동 활동가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교육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이종석)는 최근 새마을운동 부안군지회를 방문해 활동가 40명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활동가들의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과 마음 건강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현장에서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감정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우울과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참여자들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 실습이 함께 이뤄져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부안군지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활동가들의 건강한 정서와 지속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교육을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센터 관계자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활동가들이 심리적 소진을 겪지 않도록 정신건강교육과 개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 군민 체감 실행 과제 발굴 본격화

권익현 군수 '업무추진 집중' 강조

부안군은 민선 9기 부안군정의 본격 출범에 맞춰 군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실행 과제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실제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6일 열린 월요 간부회의에서 "민선 9기 군정이 본격적으로 출범하고 하반기 정기 인사도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새로운 군정 운영 방향과 부서별 역할을 바탕으로 전 부서가 속도감과 긴장감을 갖고 소관 업무 추진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익현 군수는 각 부서에 민선 9기 5대 분야 10대 핵심과제와 소관 공약사업, 주요 현안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군민 체감형 100일 실행 과제를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실행 과제는 군민 불편 해소, 생활비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력, 생활인구 확대 등 군민이 빠르게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발굴할 것을 당부했다.

권익현 군수는 "민선 9기 초반 100일은 앞으로 4년 군정의 방향과 신뢰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전 부서에서는 군민 눈높이에서 무엇이 달라지고 어떤 도움이 되며 언제부터 체감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실행 과제를 내실 있게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군은 기획감사담당관을 중심으로 부서별 실행 과제를 종합하고 향후 민선 9기 군민 체감형 100일 실행 과제 보고회 등을 통해 과제를 추진 가능성과 실행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추진상황을 군민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준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장마, 폭염, 식중독, 온열질환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

권익현 군수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하고 큰 성과를 내더라도 청결, 위생, 안전과 같은 기본이 흔들리면 군민 건강과 군정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각 부처와 읍·면에서는 청결·위생·안전이 행정의 가장 기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재단 취약요인과 부서간 대응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점검 완료

안전사고 대응체계 강화

고창군이 군민과 탐방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지점번호판에 대한 일제점검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국가지점번호판은 도로명주소가 없는 산악지역이나 저수지 등에서 현재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를 표시한 안내시설이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신고자가 국가지점번호를 전달하면 소방·경찰 등 구조기관이 정확한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인명구조와 사고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창군은 지난 3월부터 관내 국가지점번호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훼손되거나 망실되는 등 교체할 필요한 시설을 조사했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시설을 제외한 21개소의 국가지점번호판을 교체했으며, 휴대전화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 40개소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완료했다.

또한 고창소방서와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와 강풍 등 자연재난에 따른 산악사고에 대비하고, 선운산도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일까지 주요 등산로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의 훼손 여부와 설치 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양미옥 고창군 종합민원과정장은 "국가지점번호판은 응급상황 발생 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주소정보시설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한 주소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군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장애인복지 홍보 활성화 나서

(주)아삭과 업무협약 체결

김제시는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승택)이 지난 6일 (주)아삭(대표 신우지)과 장애인복지 홍보 활성화와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아삭은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를 기획·운영하는 전문기업으로, 지역 브랜딩과 축제·이벤트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행사 운영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장애인복지

사업 홍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축제와 행사에서 복지관 홍보부스 운영을 지원하고, 홍보물 배부와 홍보 공간 제공 등을 통해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박승택 관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기업과 함께 장애인복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장애인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주)링티와 복분자 유통 활성화

'링티 복분자맛 출시' 농가 소득 증대 도모

전북 고창군이 국내 프리미엄 건강 브랜드 (주)링티(대표 이원철)와 손잡고 고창 복분자 소비 확대와 브랜드 가치 높이기 나선다.

고창군은 7일 군청에서 (주)링티와 '고창 복분자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대표 복분자 산지인 고창군의 우수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주)링티와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판로 확대와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링티는 기능성 음료 전문기업으로, 체내 수분 흡수를 돕는 이온음료 형태의 분말 제품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다.

운동, 야외활동, 일상 건강관리 등 다양한 소비층을 대상으로 제품군을



<사진=고창군>

확대하며 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브랜드 및 지역 농산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주)링티는 고창 복분자를 활용한 '링티 복분자맛' 제품을 오는 13일 공식 출시할 예정이며, 온라인 공식몰과 다양한 판매 채널을 통해 전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복분자는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대표 특산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링티와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고창 복분자를 더욱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안군, 서해안 철도망 구축 '총력'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적극 건의

부안군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서해안(새만금~목포) 철도 건설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방문에서 새만금에서 목포까지 연결되는 서해안 철도는 대한민국의 서해안길에 U자형 철도망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산업·물류망 확충

을 도모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인 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해안(새만금~목포) 철도가 반영돼야 함을 강조했다.

새만금(군산시·김제시)-부안군-고창군-영광군-함평군-목포시를 연결하는 서해안 철도망 구축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의 국내·외 무역 전진기지로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며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추진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이와 함께 군은 국도 23호 왕복 2차선 구간(부안 행안~고창 흥덕) 5.9km를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의 신속

한 추진, 국도 30호선(변산-진서-보안) 선형 개선 사업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반영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서해안 철도는 새만금권과 서해안 지역의 균형발전과 물류·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인 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국도 23호선 4차로 확장과 국도 30호선 선형 개선 사업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돼 지역 주민 및 탐방객의 교통 여건이 조속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농특산물 경쟁력 입증"

메가쇼 팔도밥상페어 참가 풍천장어멜론 조기 완판

고창군 정보화농업연구회(회장 오세훈) 회원으로 구성된 '농부장터' 팀이 지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팔도 밥상페어(7월 2~5일)'에 참가해 고창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시장 경쟁력을 입증했다.

고창군은 대표 특산물인 풍천장어와 멜론이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행사 마지막 날 조기 완판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외에도 땅콩버터, 땅콩, 고춧가루,

서리태 분말, 발사믹식초, 흥도라지청 등 다양한 가공제품도 높은 인기를 끌며 준비된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는 등 고창 농산물 전반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이번 참여는 단순한 판촉을 넘어, 지역 농업인들이 스스로 판로를 개척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온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고창군 정보화농업연구회는 매월 두 번째 일요일마다 고창읍성 차 없는 거리에서 '농부장터'를 정기적으로 운영 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외부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을 확인했다. 오세훈 정보화농업연구회장도 4일간 현장을 함께하며 회원들을 격려하고 운영 전반을 지원해 참여 농가의 사기를 북돋웠다.

오성동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농산물 마케팅 역량이 농가 소득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정보화농업연구회회원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마케팅 교육과 판로 확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영농 안정 지원 '두 팔 걷어' 2(題)

순창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순창군이 고령 영세농업인의 농업 경영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고령 영세 농업인 영농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런 사업은 농작업 대행비의 일부를 지원해 고령 농업인의 농업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순창군은 총사업비 1억 5천만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순창군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1955년생) 고령 농업인이다. 이 중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농지 소유 및 경작면적이 1,000㎡ 이상에서 5,000㎡ 이하인 영세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단,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순창군 관내 거주자가 정읍, 남원, 임실, 곡성, 담양, 장성 등

연접 시·군에 경작지를 두었더라도 공익직불금 대상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기준은 벼 경작면적 1㎡당 115원 이내로 농가당 최대 5,000㎡까지 지원하며, 부부 농가의 경우 한 명에게만 지급된다.

특히 군은 고령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올해 공익직불제 신청자 가운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해 개별 안내하고, 마을별로 신청서와 경영체 변경신청서를 미리 배부하는 등 준비하고 있다.

신청 접수는 오는 8월 3일부터 14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받을 예정이며, 군은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9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 추가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태풍 대비 농업기반시설 일제 점검



완주군이 본격적인 장마철 집중호우와 복사 중인 제9호 태풍 '바비'에 대비해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과 정비에 나서는 등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6일 완주군은 하천기반과 회의실에서 관내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업기반시설 대응 계획 및 비상협력 체계를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힘든 기상적 집중호우와 강한 태풍이 예

상됨에 따라, 침수 취약 지역의 배수 시설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 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저수지 등 주요 농업기반시설의 가동 상태를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태풍과 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유지보수 업체의 인력과 장비를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망과 동원 체계를 재정비했다.

최병준 하천기반과장은 "군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상반기 지방세정 종합평가 '대상'

전북도 상반기 우수시군 선정 강력대응복지연계 병행 호평

남원시가 전북특별자치도 세정 과정에서 실시한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우수시군 종합평가'에서 3개 평가그룹 가운데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함께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는 등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남원시는 올해 상반기(4월 1일 ~ 5월 31일) 지방세 체납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자의 부동산 92건과 차량 등 702건을 압류했으며, 이 중 부동산 14건과 차량 10건은 공매를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출구금지 8명, 명단공개 15명, 가택수색 11명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했으며, 특히 가택수색을 통

해 5명으로부터 7,100만 원을 현장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시가 새롭게 도입한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사실 자동안내문자시스템'은 변호판 영치 즉시 안내 문자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해 132대 영치, 1억 1,8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더불어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소액 체납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가구에는 긴급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시민의 삶까지 살피는 '강한 징수와 따뜻한 보호'를 실현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지원을 병행해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남원 사매면 수촌마을 '생활여건 개조' 선정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 공모 22억원 확보 정주환경 개선

남원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7년 농어촌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사매면 서도리 수촌마을이 최종 선정됐고 밝혔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노후주택 밀집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과 생활·위생·안전 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국가 공모사업이다.

남원시는 지난 2015년 주생 재전·서만마을을 시작으로 주천 용치마을, 송동 태동마을, 대강 입암마을, 수지 등동마을, 산내 입석마을, 이백 계산

마을, 대강 강석마을, 대강 옥전마을 까지 꾸준히 이 사업에 선정되며 관내 노후 마을의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이번 사매면 수촌마을 선정으로 남원시는 통산 10번째 사업 대상지를 확보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서면·대면·현장 평가 등 여러 차례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가 확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남원시는 총 2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노후주택 정비,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 주민 공동체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오는 2027년 3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 세부 사업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군, 신중년 만성질환 예방 지역 순회 건강교실 운영

완주군이 신중년 여성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능력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순회 건강생활실천 교육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신중년 근력 강화 증진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17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참여자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사업 운영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순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은 올해 신중년 여성과 지역 주민의 근력 저하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신중년 근력 강화 증진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주 2회 근력 강화 프로그램이 참여 주민 거주지의 보건지소 등에서 진행중이며 보건소는 이와 연계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한 식생활 개선, 개인별 신체활동 실천 교육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신중년 여성은 중년기 이후 신체활동 감소, 근력 저하, 체지방 증가, 갱년기 이후 대사 변화 등으로 인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근력운동과 영양교육을 함께 연계해 참여자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이해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첫 교육은 지난 3일 행복완주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열렸으며, 국립군산대학교 간호학과 박영례 교수가 강사로 참여했다.

완주군보건소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신중년 근력 강화 증진 사업 운영 장소를 중심으로 건강생활실천 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 대학, 관내 의료기관, 민·관기관 등과 협력해 영양관리, 신체활동, 만성질환 예방, 갱년기 건강관리, 구강보건, 심폐소생술, 스트레스 관리 등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과도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10개 중·고교 대상 구강보건사업 추진

순창군이 지역 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 불소도포를 연계한 통합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며 학생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이달 7일부터 12월까지 지역 내 중·고등학교와 협력해 진행되며, 대상은 중학교 7개교 490명과 고등학교 3개교 604명 등 총 1,094명의 학생이다.

사업은 학생들의 올바른 구강건강 습관 형성과 충치 예방을 위해 예방 중심으로 운영된다. 먼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자료를 활용해 올바른 칫솔질 방법과 충치 예방법, 건강한 식습관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이어 치과전문의가 참여하는 구강검진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구강 상태를 점검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검진 결과를 안내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충치 예방 효과가 높은 불소를 도포해 치아를 강화하고 충치 발생 위험을 낮추는 예방 조치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제3회 남원춘향배 어울림 파크골프대회 성료

제3회 남원춘향배 어울림 파크골프대회가 7일 남원종합스포츠타운 내 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됐다.

남원시장에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골프협회 남원시지부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2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경기는 단체전(4인)과 개인전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단체전은 혼성 4인조 18홀 포스트 플레이 방식으로, 개인전은 18홀 샷인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각각 치러졌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파크골프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이 스포츠를 매개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한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체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남원시의회, 제10대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마우천·오동환·이기열 당선 20일 첫 업무보고 의정 돌입

남원시의회(의장 한명숙)는 6일 본회의장에서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10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 원구성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날 선거 결과, 의회 행정을 총괄할 운영위원회에는 초선의 마우천 의원(향교·도동)이 당선됐다. 이어 자치행정위원회에는 재선의 오동환 의원(향교·도동), 경제농정위원회에는 재선의

이기열 의원(수지·송동·금지·대강)이 각각 선출되며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최종 확정됐다.

마우천 운영위원장은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의원 간 소통을 강화하는 가교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오동환 자치행정위원장은 "지방자치의 본질은 시민의 삶의 질 제고에 있다"며 "시정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집행부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치행정위원회가 되도록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기열 경제농정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는 시민들의 가장 큰 바람"이라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3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친 남원시의회는 오는 20일 제282회 임시회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군 새 문화거점 고운삼봉도서관 개관

독서·문화·행정 복합공간 AI 기반 스마트도서관 구축

완주군의 새로운 '도시의 거실'로 주목받는 고운삼봉도서관이 7일 문을 열고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완주군의회 성준기 의장, 윤수봉·권요안 도의원, 지역 기관 및 사회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독서·문화·행정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의 탄생을 축하했다.

고운삼봉도서관은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2,969㎡,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내부에 민원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가 함께 들어서 원스톱 행정·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완주군>

또한 1만 5,000여 권의 장서를 갖추었으며 인공지능(AI) 스마트 로봇, 디지털 명화 갤러리, 자동 대출 반납 시스템, 스마트 반납 서가 등 최신 무선전자 수식 시스템(RFID) 기반 자동화 기기를 구축해 편리한 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관을 기념해 오는 7월 8일과 15일 부모 교육을 시작으로 11일 시네마 음악, 14일 조병영 교수 특강, 25일 오작가 초청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은 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민선9기 첫 업무보고...시정 '밀그림'

10일까지 핵심과제 집중 점검 경제·민생 핵심과제 논의

남원시가 민선 9기 '시민과 함께하는 경제도시' 실현을 위해 7일부터 10일까지 시청 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민선 9기 공약사업 등 핵심 추진과제를 정립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모노레일 사태 해결, 청령도 회

복, 기업 유치, 지리산 의료기반 치유 정주 클러스터 조성, IB 교육벨트 구축, 농업예산 확대 등 주요 현안과 민선 9기 핵심 전라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방향과 실행계획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보고, 지시 형식에서 벗어나 팀장급 공무원까지 함께 참여한 종합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부서 간 칸막이를 과감히 없애 긴밀하게 소통·협력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양 시장은 이 자리에서 공직자들에게

공공자 중심의 행정 관행을 탈피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일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시민의 발높이에 맞춰 부지런히 현장을 뛰는 맞춤형 소통 행정"을 민선 9기 시정의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남원시는 향후 주요 경제 활성화 대책 및 민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각적인 전문가 자문과 소통 채널을 가동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확정된 사업은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농협은행 완주군지부, 미래인재 장학금 전달

농협은행 완주군지부가 지역인재 육성과 학생들의 학업 지원을 위해 장학금 200만 원을 (재)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 기탁했다.

7일 농협은행 완주군지부는 완주군청 군수실에서 유희태 완주군수와 원천연 농협은행 완주군지부장, 국형욱 부지부장, 오동민 완주군청총장소장 지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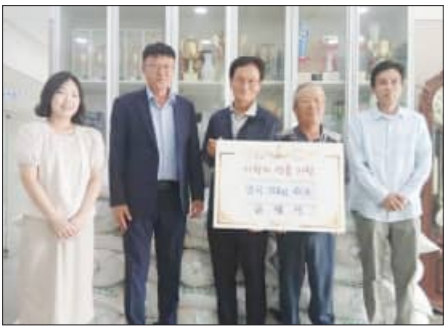
이번 장학금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을 통해 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업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농협은행 완주군지부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취약계층 지원, 농업·농촌 발전, 장학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1,000만 원, 2023년 2,000만 원에 이어 올해 200만 원을 추가로 전달하며 현재까지 총 3,200만 원의 장학금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 기탁해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나눔을 이어가는 중이다.

원천연 지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기탁해주신 장학금은 학생들이 더 큰 꿈을 키우고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산서육묘장 윤재석 대표, 장수 산서면에 쌀 42포 기탁

장수군 산서면은 산서육묘장 윤재석 대표가 올해도 변함없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이어갔다. 윤 대표는 지난 6일 산서면사무소를 방문해 무더위와 장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20kg 쌀 42포를 기탁했다. 윤 대표는 매년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 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 지속적인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며 주민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윤재석 대표는 "매년 이어온 나눔이지만 올해도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이 소외감 없이 건강하고 따뜻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 관촌면지사협 취약계층에 반찬 꾸러미 전달

임실군 관촌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소지현, 조래춘)는 지난 2일 제철 김치와 밀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영양 반찬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특화사업은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선대 로타리 클럽의 메추리알 후원으로 훈훈함을 더했으며, 협의체 위원 20여 명이 일일이 김치, 파피리추조림 등을 정성껏 만들어 독거 어르신 등 저소득 취약계층 40가구를 방문해 직접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래춘 민간위원장은 "건강한 한 끼 식사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으며, 맛있게 드시고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2026 진안홍삼축제 프로그램·축제장 구성 확정

오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2026 진안홍삼축제'가 축제장 구성과 주요 프로그램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우덕희·정복수)는 7일 진안군청 상황실에서 제3차 총회를 열고 축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위원회는 축제장 구성(안)과 부스 모집 계획(안), 주요 프로그램(안)을 최종 확정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진안홍삼축제는 오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마산 북부 일원에서 개최된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전야 행사로 9월 17일 진안읍 일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낙화놀이와 펼쳐지며, 개막 퍼포먼스와 함께 진안 홍삼의 우수성을 알리는 다채로운 체험·공연·전시 프로그램이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홍삼스파&홍삼한상, 홍삼파워존, 홍삼깎뚜기 담그기, 홍삼떡볶이 나눔, 진안홍삼빙고!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가 운영된다. /진안=전필민 기자

임실군, 여름철 농업재해 예방 총력

'영농종합상황실' 본격 가동 후우-태풍-폭염 대응반 운영 현장중심 예방활동 강화

임실군이 기후변화로 해마다 심화되는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군은 여름철 기상재해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여름철 영농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재해 예방부터 현장 대응, 피해 복구까지 아우르는 상시 대응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6~8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고, 지역별 강수량 편차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평균기온 역시 평년(23.7℃)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농업 분야

의 철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실군농업기술센터는 기술보급과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식량작물반(10명), △과수원예작물반(13명), △동향조사반(12명) 등 3개반 35명의 전담 대응반을 편성해 재해 발생에 대비한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식량작물반은 영농종합상황실 운영을 총괄하며 벼와 밭작물 등 주요 식량작물의 생육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기상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자료를 신속히 제작·보급하는 등 현장 밀착형 기술지원에 나선다. 과수원예작물반은 고온과 폭우에 예민한 과수와 원예특작, 축산 분야를 대상으로 재해 취약요인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기상특보 발효 전후 농가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전 예방요령과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방법을 문자, SNS,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동향조사반은 읍·면별 영농현황과 농업 시설 피해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재해 발생 시 실시간 피해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행정지원과 복구대책 수립이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군은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농경지 배수로와 논두렁, 물꼬를 사전에 정비하고 시설하우스와 축사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집중 실시하고 있다. 폭염에 대비해서는 농작물의 고온 피해를 줄이기 위한 물 흘려대기와 미세 살수시설 가동을 적극 지도하는 한편, 축산농가에는 송풍팬과 환기시설 가동, 축사 온도 저감관리 등을 집중 안내해 가축 폐사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기상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상기후 발생 시 신속한 현장 기술지원과 긴급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 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할 방침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제2회 전국승마대회 개최

경기도 대표 선발전 겸한 전국 규모 승마대회

장수군은 지난 6일부터 오는 12일까지 6일간 장수군 천천면 장수국제승마장에서 제2회 경기도체육회 주최 전국승마대회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승마협회(회장 김의종)가 주관하고 대한승마협회로부터 전 종목 공인을 받은 전국 규모의 승마대회로 마장마술과 장애물 경기 등 총 25개 종목이 진행됐다. 대회에는 전국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 선수 400여 명과 마필 350두가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열띤 경연을 펼쳤다. 경기는 KEF 공인종목인 마장마술 A·B·C·D·F-1 Class·S-1 Class

와 장애물 80~145 Class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구성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기량 점검의 장이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 대표 선발전은 겸해 치러져 전국 승마인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준 높은 경기가 이어졌으며 우수 선수 발굴과 승마 저변 확대에도 의미를 더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대회가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전국 승마인들이 서로 교류하며 화합하는 뜻깊은 무대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수군이 대한민국 승마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승마산업 육성과 전국 단위 대회 유치, 승마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민선 9기 군정 본격화

업무보고회·주요 업무 점검 현장·협업·책임 행정 기반 주민 체감 행정 실현 의지 다져

'기본사회 완성, 대도약 무주 실현'을 위한 민선 9기 무주군의 행보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주군은 지난 6일부터 주요 업무보고회를 열고 군정 분야별 핵심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9기 군정 방향을 공유하고 핵심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와 국·소장, 실·과장, 팀장 등이 함께 해 사업별 일정과 쟁점 사항, 부서 간 협조 사항 등을 살피고 있다. 무엇보다 부서 단위 업무보고를 넘어 군정 전반에 걸친 연계성과 실행 가능성을 함께 짚으며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첫날에는 태권문화과 등 7개 부서가 참석해 태권도장을 경제 축으로 키우기 위한 노력과 함께 △야간관광 활성화,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에 글로벌 환경축제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입업 경쟁력 및 산림소득 증대, △안전정적인 폐기물 처리 기반 확보, △공정한 세정운영과 자주재원 확충,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 행정 실천, △민생경제 회복, △버스 무료화 추진, △햇빛소득마을을 조성, △에너지복지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7일에는 건설과를 비롯한 8개 부서가 △항공공우주 투자선도지구 추진, △재난 대응 및 상황관리 강화, △사계절 스포츠 마케팅 강화, △안전한 수돗물 공급, △고령자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

지 조성, △농촌인력난 해소, △도시재생 및 농촌중심지 거점시설의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했다. 8일에는 사회복지과 등 6개 부서가 부서별 현안을 공유한다. 무주읍을 비롯한 6개 읍면에는 황인홍 군수가 직접 찾아가 주민 행복을 위한 군정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민선 9기 무주군은 민선 7, 8기의 연장선상에서 △모두가 누리는 기본사회, △기회를 살리는 혁신경제, △사계절 머무는 관광도시, △가치를 키우는 소득농업, △군민을 섬기는 책임행정을 실현한다는 방침으로, 무주군은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부서 간 업무 장벽을 허물어 군정 전반의 완성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주=최희호 기자



제10대 무주군의회, 개원 앞두고 유관기관 방문

지역 주요 기관과 소통하며 상생 협력의지 다져

제10대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는 오는 9일 개원식을 앞두고 7일부터 8일까지 지역 주요 유관기관과 단체를 방문하며 소통과 협력의 첫 행보에 나선다. 이번 방문은 새롭게 출범하는 제10대 무주군의회 의정 방향을 공유하고, 기관별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7일에는 무주교육지원청, 대한노인회 무주군지부, 무주종합복지관, 무주경찰서, 기자실을 차례로 방문하고, 8일에는 무주소방서, 무주문화원, 무주

군관광협의회, 무주군체육회를 찾아 기관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며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광석 의장은 "군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은 지역 발전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라며, "제10대 무주군의회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0대 무주군의회는 오는 9일 개원식을 열고 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의정의 출발을 알리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무주=최희호 기자

장수군 '장계어울림센터' 신축 추진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 선정 주민 생활밀착형 복합공간

장수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6년 상반기 도시재생 공모에서 장계면 일원이 인정사업 분야 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상권을 철거 위주로 개발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사회·문화·공간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정부 핵심 도시정책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발표평가에 올라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군은 서면평가와 현장·합표 평가로 이어지는 중앙평가단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된 6개소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선정으로 장수군은 국비 21억 1,3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지방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39억 7,700만 원을 투입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장계면 일원에 '함께 나누고 어울리는 공



장수군 장계어울림센터 조감도 <사진=장수군> 장수군은 이를 통해 주민들이 가까운 생활권에서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간 활용되지 않던 군유지를 활용해 생활SOC를 확충할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7월~10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임실군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지방재정 확충 및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지난 1일부터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2명의 관리단원을 채용하여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과 3인 1조 총 6명으로 운영중이다. 체납관리단은 소액 체납자에 대한

전화 상담 및 납부 독려, 현장 방문을 통한 체납자 실태조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체납자 발굴을 통한 복지부서 연계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부서 연계로 사회적정의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토종 메기 치어 3만3천 마리 방류

청정 하천 생태계 복원

장수군은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과 건강한 하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장계면, 천천면, 번암면 소재 하천 일원에서 토종 메기 치어 3만3천 마리를 방류했다고 7일 밝혔다. 메기는 잡식성 어류로 내수면 생태계의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토종 어종이다. 낚시자원과 어족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 함량이 비교적 낮아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방류한 메기 치어는 제왕

4~6cm 크기의 건강한 개체로, 어류전염병 검사를 모두 통과한 안전한 종자이다. 치어는 방류 후 2~3년이 지나면 약 30cm 내외로 성장해 장수군 내수면 어족자원 회복과 생물 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군은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로서 청정한 자연환경을 간직한 생태자원의 보고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토산 수산 종자를 지속적으로 방류해 내수면 수산자원을 확대하는 등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청정 수산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 덕치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

안전관리 활동 준비상황 점검

임실군 덕치면은 지난 3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섬진강변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활동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의식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덕치면 섬진강변은 매년 많은 관광객과 피서객들이 찾는 물놀이 명소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맑은 수질을 자랑하며 여름철 휴식과 여가를 즐기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들은 사전교육을 통해 물놀이 안전수칙 안내, 순찰 요령,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CPR) 등

현장 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했다. 이들은 오는 7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섬진강변 주요 물놀이 구역에 배치되어 안전수칙 홍보와 계도활동, 위험 지역 순찰 등을 실시하며 관광객들의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부안 주산면 새마을부녀회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 기탁**

부안군은 지난 6일 주산면 새마을부녀회 모정숙 회장과 회원들이 지역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모아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주산면 새마을부녀회는 평소 지역 내 환경정비와 나눔 활동,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지역사회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기부는 회원들이 뜻을 모아 지역에 보탬이 되고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에 의미를 더했다.

모정숙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지역을 위한 뜻깊은 나눔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임실 오수면지사협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봉사**

임실군 오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지난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2026년 마을복지 특화사업으로 안전 취약계층의 아간 귀가 시 보행불편 해소를 위해 태양광 센서등을 설치하고, 주방의 노후된 환풍기를 교체 해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4월부터 각 마을 복지이장 및 협의체 위원, 면 복지팀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아 민간위원장 및 위원들이 사전 가정방문 확인 조사를 통해 각 사업별로 33가구씩(총 66가구)을 지원키로 확정했다.

협의체는 지난 6월 말 임성마을에 홀로 거주하는 조모 어르신(81세) 가정을 찾아 환풍기 교체와 태양광 센서등 설치 활동을 전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구석구석 안전 위험요인이 없는지 꼼꼼히 살폈으며, 앞으로 11월까지 각 마을 대상가구를 방문 해 순차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임실=한병열 기자

부안해경, 익수자 살린 유재수 씨에 감사장 수여

비명 놓치지 않고 신속 신고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생터)는 지난달 27일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공항 앞 해상에서 발생한 익수자 구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남시객 유재수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감사장을 받은 유재수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공항 약 1km 앞 해상에서 낚시를 하던 중, 인근에 배 한 척이 홀로 떠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주변을 살피다 거친 바다 사이로 들려오는 "사람 살려!"라는 절박한 비명소리를 들었다.

유 씨는 지체 없이 긴급 신고를 접수했고, 구체적인 사고 위치와 현장 상황을 짐작하게 설명하여 해경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유재수 씨의 철저한 신고 덕분에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던 익수자는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부안해경은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긴박한 상황에서 이웃의 위급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신속하게 행동한 유 씨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이번 감사장 수여를 마련했다.

감사장을 전달받은 유재수 씨는



"바다에서 낚시를 하던 중 비명소리를 듣고 누구라도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라며 "해경이 정말 신속하게 출동해 준 덕분에 소중한 생명이 살아나 다행이고, 당연한 일을 했는데 감사장까지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남원 향교동행복지센터
화재 피해 농가 일손돕기 실시**

남원시 향교동행복지센터(동장 최원복)는 7일, 관내 주택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농가를 찾아 감자 캐기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손돕기에는 향교동행복지센터 직원과 종합행정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 직원 16명이 참여했다.

올해 초 불의의 화재로 주택을 잃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직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감사 수확에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이번 지원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고려하고, 논에 비해 수작업 의존도가 높은 밭작물의 특성을 반영해 감자 캐기 영농 작업에 초점을 맞췄다.

직원들은 "평소 책상 앞에서 처리하던 행정 업무와 달리, 흙을 만지며 구슬땀을 흘리는 게 쉽지 않았지만 오히려 보람이 컸다"며 "작은 힘이지만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김일천 삼호정밀 회장, 완주군에 500만원 전달

장애인 체육 발전 기금 기탁

김일천 삼호정밀 회장이 7일 완주군 장애인 체육 진흥 발전 기금으로 500만 원을 전달하며 완주군 장애인 체육 발전에 힘을 보탰다.

삼호정밀은 지난 1995년 설립된 완주산업단지외 부산에 거점을 둔 방산 전문기업으로 육군 전차와 자주포 등 지상장비의 정비용 금속가공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번 기부된 발전기금은 완주

군 장애인체육회에 전달돼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건강한 생활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일천 삼호정밀 회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장애인 체육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기탁해주신 발전기금은 장애인 체육 복지 향상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전주시 국장승진자

이성순
(여 1970년생)
현재 도서관평생학습본부
도서관정책과장

이영숙
(여 1970년생)
현재 인구청년정책국
청년정책과장

조문성
(남 1972년생)
현재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산업과장

장재영
(남 1967년생)
현재 동물원장

박은주
(여 1968년생)
현재 우아2동장



포비스팜, 김제 백구면에 상추 500kg 기부

김제시 백구면 행정복지센터는 7일 포비스팜(대표 류현민)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어르신들을 위해 유리피안 상추 500kg을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난 6월 말부터 총 5회에 걸쳐 이뤄졌으며, 기부받은 유리피안 상추는 백구면 지역사회회보장협의체와 복지기동대, 마을이장 등 지역 봉사자들의 협조를 통해 관내 경로당과 요양시설, 취

약계층 390세대에 전달됐다. 신선한 유리피안 상추는 어르신들과 취약계층 가정의 식탁에 건 강한 먹거리로 전해졌으며, 특히 무더운 날씨 속에서 영양 섭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류현민 포비스팜 대표는 백구면 뿐 아니라 지역 곳곳에서 꾸준한 기부와 나눔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김제=은봉기 기자



군산 중앙동, 저소득 18가구 방충망 설치 지원

군산시 중앙동(동장 김종훈)이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시민참여예산 사업인 '사랑의 여름나기, 방충망 설치 및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저소득 가구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노후되거나 훼손된 방충망으로 인해 모기와 해충 유입, 환기 불편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동은 사전 수요조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저소득 18가구를 선정하고, 각 가구의 노후 방충망 설치 및 교체를 지원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예산 편성에 참여한 시민참여예산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민중사업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생활 불편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빗길 운전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



**빗길 교통 사망사고
7~8월에 집중**



승용차 기준

**빗길 제동거리
맑은 날 대비
약 1.8배 증가**



〈一事一言〉



사라지는 밭의 풍경

배해수

무형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고고인류학 박사

한낮이 밤보다 길어지는 하지가 지나면 계절은 소서와 대서를 향해 나아간다. 그 사이에는 초복, 중복, 말복이 이어진다. 절기는 단순히 날짜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다. 선조들은 계절이 바뀌는 흐름을 몸으로 익히고 그것을 스물네 개의 절기로 정리하였다.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위해 징검다리를 놓듯, 자연의 변화를 생활의 기준으로 삼은 지혜였다. 농사를 중심으로 살아온 오랜 경험이 축적된 삶의 달력이기도 하다.

얼마 전 전북 완주의 한 감자밭을 찾았다. 이른 아침부터 스무 명이 넘는 사람들이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감자를 수확하고 있었다. 예전처럼 호미로 한 알씩 캐는 모습은 아니었다. 감자 수확기를 부착한 경운기가 밭을 지나가면 흙속의 감자가 땅 위로 쏠아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일일이 주워 자루에 담았다. 잡초를 제거하는 예초기와 감자를 캐는 경운기, 포대를 옮기는 트랙터까지 여러 기계가 쉼 없이 움직였다.

기계가 농사의 많은 부분을 대신하고 있지만 마지막 일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 흙 위로 올라온 감자를 골라 담고, 상한 것을 구분하고, 자루를 묶는 일은 기계가 대신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 넓은 밭에서 한국 사람은 거

의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수확을 맡고 있었고, 젊은 사람을 찾기도 어려웠다. 밭에서 만나는 젊은 여성은 대개 농장의 주인이거나 가족이었다.

농사는 기계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지만 밭농사는 지금도 많은 손길을 필요로 한다. 사람 없이 밭농사는 유지되기 어렵다. 문제는 그 사람을 찾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실이다. 농촌의 고령화는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어 왔지만 이제는 세대가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더 큰 걱정이 되고 있다.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으면 기술도, 경험도, 삶의 방식도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음 세대와 연결될 때 비로소 이어진다. 사람이 끊기면 기술도 끊기고, 문화도 끊기며, 공동체가 오랫동안 축적해 온 지혜 역시 함께 사라진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적어도 농업만큼은 사람의 경험과 손길을 완전히 대신하기 어렵다. 흙의 상태를 살피고, 하늘의 기색을 읽으며,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기억하는 일은 오랜 시간 축적된 삶의 경험이기 때문이다.

문화인류학에는 '한 노인이 세상을 떠나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고, 한 여성 노인이 세

상을 떠나면 박물관 하나가 사라진다'는 말이 있다. 한 사람의 삶에는 그 시대가 축적한 지식과 경험, 공동체의 기억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이다. 농부 한 사람이 평생 쌓아온 경험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한 개인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이어온 삶의 기록이다.

농업은 오랫동안 국가 산업의 뒤편으로 밀려났다. 국제 개방과 여러 차례의 무역 협상 속에서 첨단산업과 제조업의 성장을 위해 가장 먼저 양보를 요구받은 분야도 농업이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많은 성장의 이면에는 묵묵히 희생을 감내한 농업인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지를 지나 다시 한여름으로 향하는 계절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절기가 해마다 변함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농업 또한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한다. 밭에서 흙을 일구는 사람의 손길이 존중받고, 농사가 다시 희망으로 이야기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남겨야 할 가장 소중한 삶의 모양이다.

독자투고

물·그늘·휴식, 생명을 지키는 여름철 안전수칙



여름철이 되면 119구급대는 온열질환 환자를 자주 만나게 된다. "발열을 하다가 갑자기 어지럽습니다.", "더위를 먹은 것 같은데 기운이 없습니다.", "집에 계시던 어르신이 축 늘어져 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날이면 이런 신고가 끊이지 않는다. 대부분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예방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의식 저하나 심정지로 이어지는 위험한 상황도 발생한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35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60%는 61세 이상 고령층이었으며, 온열질환자의 절반 이상이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폭염은 이제 일시적인 이상기후가 아닌 여름철 일상이 된 만큼 누구나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

여름철에는 무리한 야외활동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는 활동은 온열질환 위험을 크게 높인다. 한낮에는 잠시 그늘에서 쉬어가는 것만으로도 체온 상승을 막을 수 있다. "조금만 더 하고 쉬자."라는 생각이 오히려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자신의 몸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무리하지 않는 습관도 중요하다.

온열질환은 특히 어르신에게 더 위험하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기능과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본인도 모르는 사이 탈수가 진행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이 집 안에서 탈진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족과 이웃의 안부 전화 한 통, "물은 드셨어요?"라는 한마디가 어르신을 지키는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다.

온열질환 예방수칙은 어렵지 않다. 첫째,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물을 자주 마신다. 둘째,

햇볕을 피하고 시원한 그늘에서 충분히 쉬는다. 셋째, 더운 시간대에는 무리한 활동을 피한다. 질병관리청은 폭염 예방의 핵심으로 '물·그늘·휴식'을 강조하고 있다. 복잡한 응급처치보다 이러한 기본수칙을 지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어지럼증, 두통, 심한 피로감, 근육경련,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온열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겨 몸을 식혀주고, 의식이 저하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신속히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9구급대는 폭염 속에서도 언제든 도민의 곁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에서 쉬며, 무리한 활동을 피하는 작은 실천이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응급처치이자 열여름을 안전하게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전주덕진소방서 금암119안전센터 구급대원 임준석

사설 17년 만의 첫발, 새만금 간척농업 이제 산업으로 키워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간척농업 연구개발이 첫발을 내디뎠다. 국립식량과학원 간척지농업연구센터가 문을 열면서 새만금이 단순한 간척지를 넘어 미래 농업의 연구·실증 공간으로 도약할 기반을 갖추게 됐다. 농생명용지 조성사업이 시작된 지 17년 만의 첫 공공 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그러나 마냥 박수만 칠 일은 아니다. 17년이라는 시간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이 얼마나 더디게 진행돼 왔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이기도 하다. 그동안 새만금은 거창한 비전과 수많은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과 산업화 측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제 연구센터 하나가 문을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또다시 '농생명 메카'와 '스마트농업 허브'를 외치는 것은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연구 성과를 산업으로 연결하는 일이다. 간척지의 염분과 습해, 배수 문제를 해결할 기술을 개발하고 스마트농업과 대규모 영농기술을 실증하는

데 그쳐서는 부족하다. 개발된 기술이 농가에 보급되고 종자와 비료, 농기계, 스마트팜 기업의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 나아가 생산과 가공, 수출까지 연결되는 농생명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새만금은 넓은 농생명용지와 국가 연구기관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다. 이를 활용한다면 국내 간척농업의 시험장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기술과 K-농업 수출 모델을 만드는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농촌진흥청은 연구기관 개소를 성과로 포장하는 데 머물지 말고 민간기업과 농업 현장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후속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

17년 만의 첫발은 분명 반갑다. 그러나 이제 막 출발선에 섰을 뿐이다. 연구센터 하나 문 열 것으로 삼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새만금 간척농업의 연구 성과를 산업과 일자리, 농가 소득과 수출로 연결할 때 비로소 이번 첫발의 의미가 완성될 것이다.

오늘의시

7월 / 이 외 수

그대는
오늘도 부재중인가
정오의 햇빛 속에서
공허한 전화벨 소리처럼
매미들이 울고 있다
나는
세상을 등지고
원고지 속으로
망명한다
텅 빈 백색의 거리
모든 문들이

닫혀 있다
인생이 깊어지면
어쩔 수 없이
그리움도 깊어진다
나는
인간이라는 단어를
방마다 입주시키고
빈혈을 앓으며
쓰러진다
끊임없이 목이 마르다

시인 약력 : 1946년 경남 함양 출생. 1964년 춘천교육대학교에 입학했다. 군 제대 후 중퇴했다. 1975년 중편 '혼장'이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정식 등단했다. '겨울나기', 장편 '들개', '칼' 등을 비롯 에세이 '내 잠속에 비 내리는데', '말더듬이의 겨울수첩' 등을 발표했다. 소설 '혼장'과 '꿈꾸는 식물', 시집으로 '그리움도 화석이 된다' 등이 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등록번호 전북가-00022(발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완주지국 010-98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정읍지국 010-8626-6049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8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JBT 전북타임스신문

도민의 제보가 지역사회 만드는 힘이 됩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기사제보-063)282-9600~3

김제시, 대한민국 체류형 관광 새로운 이정표 제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김제시가 관광을 통한 '생활인구 충전'이라는 성공법을 택했다.

김제시는 단순한 관광형 관광에서 벗어나 외지인이 지역에 머물며 주민과 교류하는 '체류형 관광 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해 3대 핵심 전략 사업을 유기적으로 추진한다.

김제가 노력하고 있는 3대 핵심 전략사업인 ▲혁신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이식하는 'BETTER(베터리)' 사업, ▲수도권 자전거 여행객의 메카로 거듭나는 '자전거 여행 활성화 사업', ▲전국 최고 수준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인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을 통해 김제만의 독보적인 관광 브랜드 구축에 대해 알아보자. (편집자주)

스타트업 혁신·자전거 여행 메카·민관 협치 시너지 극대화

▲ 혁신의 새 바람, 'BETTER(베터리)' 프로젝트로 관광인구 쉼터 점프

김제시 체류형 관광의 심장은 죽산면이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6 BETTER(베터리): 인구감소지역 관광인구 충전 지원사업'을 통해 죽산면 일대를 거대한 관광 혁신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① 스타트업 7개 사와 함께하는 '관광인구 충전' 실증

죽산면은 지난 4년간 기초생활거점 조성, 로컬 재생 등 약 64억 원의 예산이 집중 투입되어 숙박과 체험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곳이다. 김제시는 이 기반 시설을 7개의 혁신 관광 스타트업에 실증장(Test-bed)로 제공했다.

(유휴 공간의 재탄생: 마을 호텔 및 복합 거점) '디어민데이'는 죽산면의 식당, 숙박, 상점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는 '마을 호텔'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미스팩토리'는 유휴 시설인 '알콩살콩' 등을 기업 워크숍 공간으로 재구성해 주중 체류 인구를 끌어들이고 있다.

또한 '고결'은 죽산 삼거리 인근 등의 유휴 건물을 활용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로컬 비즈니스 거점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타겟 맞춤형 체류 콘텐츠: 글로벌·가족·스포츠) '기르'는 재한 외국인 커뮤니티를 겨냥한 'K-Rice & Night-Race' 등 야간 콘텐츠를 선보이고, '다리메이커'는 역사·문화 관광자원과 프리미엄 아이 돌봄을 결합해 가족 단위 장기 체류객을 유치한다. '문카데미'는 달릴수록 머무르게 되는 김제시 위해 로컬 스포츠 관광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로컬 브랜드 및 관계인구 확장) 김제 연구 기업인 '에프엘디 스튜디오'는 쌀 구독 서비스와 연계한 '오늘의 평야'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단순 방문객을 김제의 정기적 후원자인 '관계 인구'로 확실히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② 2년의 로드맵, 자생적 비즈니스 모델 완성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는 이 사업은 1년 차인 올해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2년 차에는 시 주도의 홍보와 판

로 지원을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죽산면은 청년 창업가와 외지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 전국 라이더가 찾는 자전거 여행의 성지·지평선 라이딩의 메카 도약

시는 광활한 지평선과 끝없이 펼쳐진 새만금 바닷길이라는 독보적인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전국 자전거 여행객들이 반드시 가봐야 할 '라이딩의 성지'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① '에코레일 자전거 열차' 연 3회 확대 운영... 전국구 유입 가속화

시는 올해 자전거 전용 열차인 '에코레일' 운영을 연 3회로 대폭 확대한다. 기차에 자전거를 싣고 김제지역에 도착한 전국 라이더들은 김제만의 '황금드래블' 10개 코스를 누비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주체가 되고 있다.

② 유튜브와 동호인이 열광하는 '지평선 라이딩' 브랜드

이미 자전거 전문 유튜버들과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김제의 평야 코스는 '국내 유일의 끝없는 지평선을 마주하는 로드'로 극찬받고 있다. 시는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김제 라이딩의 매력을 영상 콘텐츠로 확산시키며 전국적인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단순한 라이딩을 넘어 '말랑살랑 쌀밭지순례'와 같은 테마 코스를 운영하여 자전거 여행객들의 체류 시간을 연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③ 촘촘한 안전 인프라와 라이더 편의 시설 확충

전국에서 찾아오는 라이더들의 안전을 위해 시는 대대적인 인프라 정비에 나섰다. 자전거 모터링단 '따르릉 탐험대'의 피드백을 반영해 위험 구간의 도로 도색 및 안내 표지판을 전면 개선하고 있으며, 주요 거점마다 '자전거 쉼터'를 조성



해 라이더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라이더 친화 도시' 환경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 88개 지역 업체의 자생적 연대... 전국 최우수 'S등급' DMO의 저력 이 모든 정책적 노력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비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역량을 입증한 '지역관광추진조직(DMO)'에 있다.

① 성과평가 전국 1위, 한국관광공사 사장상 수상

이러한 민관 협치의 결정체로 김제시는 지난 4월 서울 정동에서 열린 성과워크숍에서 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관광의 벤치마킹 모델로 우뚝 섰다.

② 88개 지역 업체의 협력으로 자생적 활동... 민간 주도 로컬 관광 생태계 완성

김제 DMO의 핵심 경쟁력은 숙박, 식음, 체험 등 지역 내 88개 협력업체(경영체)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자생력에 있다. 이들은 단순히 행정의 보조를 받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관광 상품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체로 진화했다. 이는 배터리 프로젝트와 같은 외부 관광벤처기업이 지역 사회와 협업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든든한 토양이 되고 있다.

▲ 유기적 연결로 그리는 '지속 가능한 관광 도시' 김제의 미래

김제시가 추진하는 관광 혁신은 개별 사업의 단순한 합을 넘어, 각 요소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입체적 시너지'를 지향한다. DMO라는 탄탄한 민간 연대의 토대 위에 배터리(BETTER) 사업이 불려온 스타트업의 혁신 플랫폼이 안착하고, 이를 전국에서 모여든 자전거 여행객들이 혈관처럼 잇는 구조다. 즉, 주민이 판을 짜고, 기업이 콘텐츠를 채우며, 라이더가 활력을 불어넣는 김제만의 독창적인 '관광 선순환 모델'이 완성된 것이다.

시는 이러한 삼위일체 전략을 통해 단순히 방문객 숫자를 늘리는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관광이 지역 주민의 소득이 되고 청년 스타트업의 기회가 되는 질적 성장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는 인구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 김제가 제시하는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기도 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관광은 이제 단순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넘어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경제 전략"이라며, "88개 협력업체의 진심 어린 열정과 스타트업의 날카로운 기술력, 그리고 전국 최고의 라이딩 인프라를 하나로 결합해, 누구나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 체류형 관광의 혁신 롤모델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언제 어디서나 즉시 사용가능한 수동식 심폐소생기

안전에 일상을 더하다